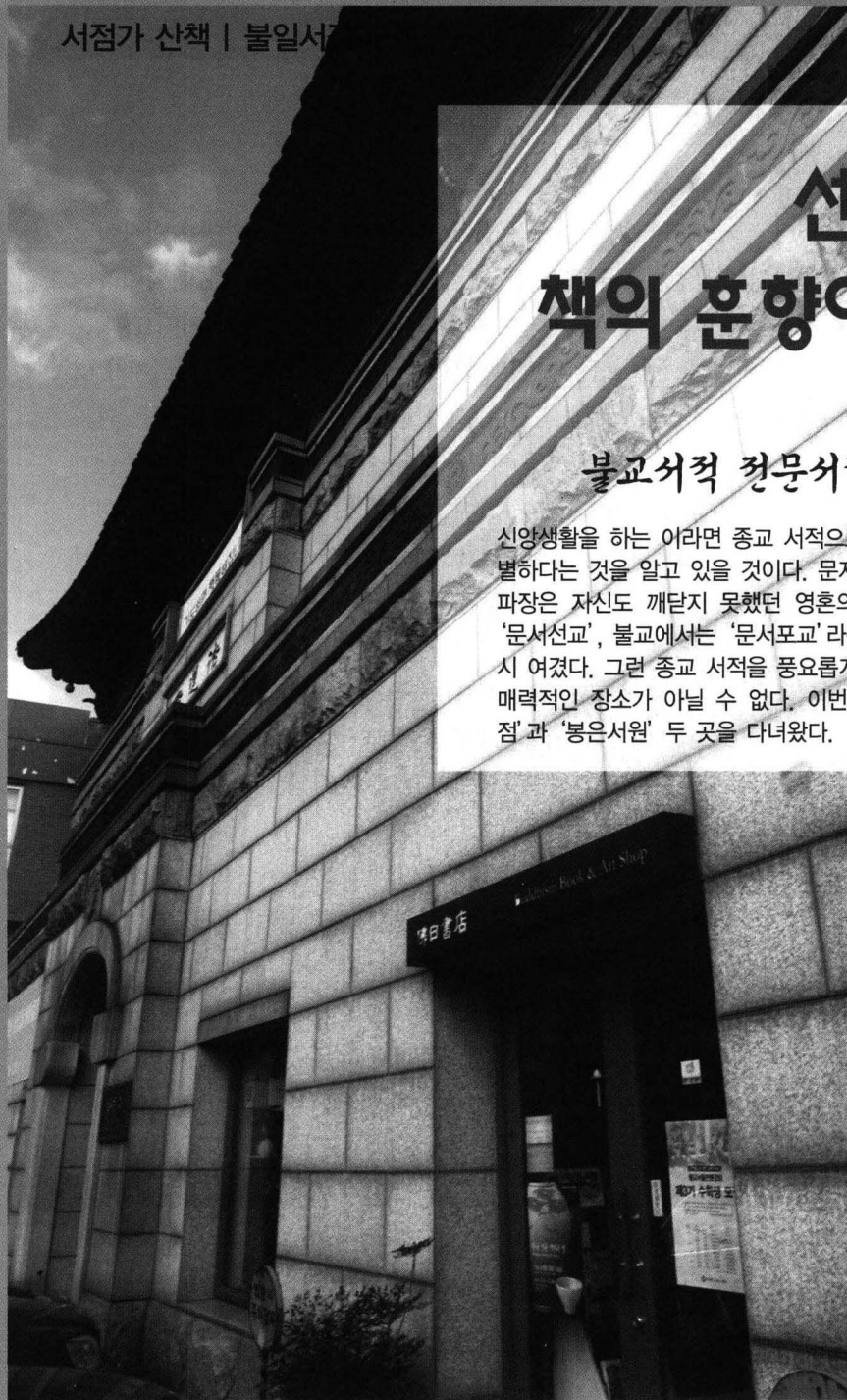


# 선(禪)적인 여유와 책의 훈향이 어우러지는 곳

불교서적 전문서점, 불일서점 · 봉은서원

신앙생활을 하는 이라면 종교 서적으로 가득 찬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자는 닫힌 생각과 마음을 소리 없이 두드리고 그 파장은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영혼의 종교적 자성을 일깨운다. 일찍부터 기독교는 '문서선교', 불교에서는 '문서포교'라는 표현으로 종교 서적이 가지는 파급력을 중요시 여겼다. 그런 종교 서적을 풍요롭게 접할 수 있는 종교 서점은 그래서 종교인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불교 서점을 대표하는 '불일점'과 '봉은서원' 두 곳을 다녀왔다.



## 불교인의 사랑방, 불일서점

삼청동 길이 시작하는 경복궁 맞은편. 불일서점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치형으로 생긴 소박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불교서적의 세상은 흔히 말하는 해탈문(解脫門) 안의 세상이다.

불일서점은 불교서적 전문서점으로는 특이하게 북카페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984년 불일출판사와 함께 문을 연 불일서점은 당시 불교계에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불교서점이 불교용품점과 별다를 바 없던 시절에 온전히 불교서적으

로만 채워진 서점이 생긴다는 것도 특별했고, 한옥의 고풍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교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력적인 문화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일서점은 불교계 인사들에게는 일종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관련 서적을 보며 다담을 나눌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로 4년째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노금실 씨는 말한다.

“이제는 양옥으로 바뀌었지만 단골 고객들은 옛 시절 한옥의 추억을 한 자락씩 안고 들립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추억하면서 책도 보고, 다담을 나누기도 하지요.”



불일서점(좌) 봉은서원(우) 내부 전경

불교서점으로서의 불일서점의 특징은 중앙의 진열대에서부터 드러난다. 법정이나 틱낫한 스님의 책 같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스테디셀러는 물론이고 《금강경》《법구경》같은 경전까지, 좁다면 좁달 수 있는 규모이지만 불교에 관한 서적은 대중화된 서적부터 전문서적까지 골고루 구비되어 있다.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점답게 서점에 얽힌 이야기도 다양하다. 단골고객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법구경》을 읽는 수녀에 관한 이야기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삼소회(三笑會) 관련 미담이다.

불교의 비구니, 가톨릭과 성공회의 수녀, 원불교의 교무 등 종교를 초월한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가 처음 결성된 것도 불일서점에서였다. 1986년 겨울 어느 날, 불일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수녀님, 교무님이 스님의 차대접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문화를 통한 포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운영을 포기했겠지요.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불교출판의 외연이 커져야 불교문화도 더욱 크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쉽습니다.”

노 씨의 말처럼 문화를 통한 포교가 절실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불일서점이 견제하는 한 불교문화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 일반 서적에서 희귀본 경전까지, 봉은서원

강남의 한복판, 코엑스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신호 등 하나만 건너면 오롯한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도심 속의 천년고찰 봉은사에 위치한 봉은서원이 그곳이다. 봉은서원은 사찰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굳이 일주문을 넘지 않아도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따라서 매장에는 불교 신도는 물론 점심때나 퇴근 시간을 이용해 들르는 인근의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작년 7월부터 봉은서원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신혜정 씨는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 전문 불교서적 외에도 정신세계에 관련한 일반서적이거나 불교입문서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법정 스님이나 일타 스님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의 책은 일반 고객도 많이 찾으세요. 또 요즘은 명상이나 참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의 책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초심자들이나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수준의 불교 서적도 많지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의 서점답게 출판사에서 구할 수 없는 전문 불교 서적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봉은서원의 특징이다. 일반 서점에서는 희귀본으로 분류되는 37권 짜리 <선림고경총서>같은 책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경전해설류의 책인데 출판사에도 없는 책들이 이곳에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책을 구하러 오는 스님이나 신도 분들에게 책을 통해 불심(佛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책을 파는 이도, 책을 사는 이도 ‘불심’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들 사이에는 일반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선(禪)적인 여유로움이 존재한다. 경전 같은 스테디셀러 외에 신간 불교 서적을 찾는 이가 많은 것도 봉은서원만의 특징이다. 최근 출간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의 경우,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일반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 공간에서 선적인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점에 들리는 분들만큼은 불교인이든 일반인이든 그런 여유에 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무소유》까지, 제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 치솟는 욕망과 어지러운 발걸음을 내려놓는 곳.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불교서점이 던지는 화두에 귀 기울여보자. ☞

취재\_ 이주연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